

지성에서 평화로*

— 김기림 문학의 일본어 번역과 전망

다카하시 아즈사^{**}

[초 록]

이 글은 식민지 시기로부터 2010년대에 이르기까지 김기림 문학(시, 수필, 평론)의 일본어 번역 상황을 검토하고 그 전망을 제시하였다. 우선 김기림의 문학은 식민지기에 출판된 김소운의 『젓빛 구름』과 『조선시집』에 실렸다. 김소운의 번역은 일본 서정시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이유로 높

* 이 논문은 “제4회 젊은 한국학자 펠로우십”(PONY CHUNG Fellowship)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 성과이다.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연구교수

주제어: 김기림, 번역, 김소운, 허남기, 오무라 마스오, ‘조선문학의 회’, 아오야기 유우코, 김시종, 사이토 마리코, 『젓빛 구름』, 『조선시집』, 『조선시선』, 『조선문학 — 소개와 연구』, 『대역 시로 배우는 조선의 마음』, 『조선문학의 지성 김기림』, 『재역 조선시집』, 서정시, 모더니스트, 저널리스트, 지성, 평화, 도호쿠대학, 김기림 기념비 Kim Kirim, Translation, Kim Soun, Hur Namki, Ōmura Masuo, *Chōsen Bungaku No Kai* (Society of Korean Literature), Aoyagi Yuko, Kim Sijong, Saito Mariko, *Chichihiro No Kumo*, *Chōsen Shishū*, *Chōsen Shisen*, *Korean Literature: Introduction and Research*, *The Mind of Korea through Poetry*, *Korean Literary Intelligence: Kim Kirim*, Lyric Poetry, Modernist, Journalist, Intellect, Peace, Tohoku University, Kim Kirim Monument

은 평가를 받았으며, 그 결과 일본 독자 역시 이 시집들에 실린 김기림 시를 서정시로 읽었을 것이다. 특히 김소운의 『조선시집』은 해방 후 창원사(1953년)에서 다시 출판되었고 이어서 이와나미서점(1954년)에서 거듭 간행했기 때문에, 김기림의 시를 서정시로 이해하는 시각은 일본에서 오랫동안 유지되었다.

다른 한 편, 출판 부수와 유통 범위는 한정되어 있었지만 재일조선인 지식인과 조선 문학에 진지한 관심을 갖추었던 일본인들은 『조선시집』에 실려지지 않은 김기림의 작품을 번역하면서, 김기림의 새로운 면모를 일본에 소개하였다. 재일조선인 시인 허남기는 제국 일본에 저항의 자세를 유지한 시인들의 시를 모아서 『조선시선』(1955)을 간행한다. 김기림이 월북작가라는 사실 또한 허남기의 시집을 통해 일본에 소개되며, 그의 시 역시 일본에 대한 저항이라는 맥락에서 이해되었다. 한편 본격적으로 조선문학을 연구한 일본인들이 조직한 ‘조선문학의 회’ 회원들은 문학사적인 관심으로 김기림 시를 번역하였다. 연구자 오무라 마스오가 대표적인 번역가이며, 그는 일본에서 김기림을 모더니즘 시인으로 소개하면서 그의 작품을 번역하였다.

2000년대 이후 김기림에 대한 일본의 이해는 이전 보다 다양해졌다. 아오야기 유우코는 단행본 『조선문학의 지성 김기림』(2009)을 통해 김기림 문학(시, 수필, 평론)을 체계적으로 번역하였다. 아오야기는 식민지 시기와 해방 후의 김기림을 연속적으로 파악하여 그 문학의 전체상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는 김기림의 ‘지성’이 서양 모더니즘 문학에 영향을 받으면서도 완전히 서양과 일본 모더니즘 문학을 추수하는 것이 아니었으며 일본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갖추었다고 평가하였다. 나아가 김기림의 ‘지성’이 해방 후 새로운 민족 문학을 추구했던 그의 활동으로 이어지는데, 해방 후 김기림의 문학적 실천은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단되는 상황 속에 수행되었기 때문에, 아오야기는 김기림의 해방 후 활동을 ‘평화애의 소원’이라고 평가했다. 김기림에 대한 아오야기의 재평가는 이후 김기림을 “근대라는 거친 파고를 넘어 큰 바다로 향했던 한 마리 나비”로 기억하는 센다이의 기념비 설립 및 각종 행사로 계승되면서 사회적으로 확산되었다.

또한 재일조선인 시인 김시중은 김소운의 『조선시집』에 수록된 식민

지 조선의 시를 충실히 다시 번역하여 『재역 조선시집』(2007)을 출판했다. 김기림의 시 역시 다시 번역되었으며, 『재역 조선시집』을 통해 김기림의 시는 일본 서정시의 특징을 지닌 시가 아니라 모더니즘 시인의 작품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김기림의 기행문 「간도기행」의 번역이나 한국의 식민지 모던걸에 관한 연구서의 번역을 통해서 저널리스트로서 김기림의 면모 역시 일본에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최근 도호쿠대학 내에 김기림 기념비가 건립된 것에서 볼 수 있듯, 김기림 문학의 여러 면모가 드러나면서 앞으로 일본에서 김기림 문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확산과 새로운 연구 네트워크의 형성 가능성 역시 기대할 수 있다. 나아가 김기림의 일본 유학 경험에 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게 되면 서구 모더니즘과도 구별되고 제국 일본의 사상과도 구별되는, 식민지 조선의 ‘지성’ 김기림의 문학과 사상이 보다 입체적으로 연구되기를 기대한다.

1. 머리말

이 글은 일본에서 김기림 문학(시, 수필, 평론)의 번역 현황을 검토하고 이후의 과제와 전망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¹⁾ 1908년에 함경북도에서 태어난 김기림은 1925년 일본으로 건너가서 1926년에는 도쿄 니혼대학(日本大學) 전문부(專門部) 문과(文科) 정과(正科)에서 수학했다. 귀국 후 그는 1930년부터 조선일보사 학예부 기자로 근무하며 여러 시, 수필, 평론 등을 발표했으며, 1933년 이상과 박태원 등과 함께 구인회를

1) 논문 수정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장문석 선생님(경희대학교), 자료 입수를 도와 주신 김동희 선생님(고려대학교)와 김민수 선생님(서울대학교)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도호쿠대학 사료관(東北大學史料館)의 간행물과 전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신 가토 사토시(加藤諭) 선생님[도호쿠대학 학술 자원 연구 공개 센터(사료관)], 그리고 전시회를 계획하시고 전시회에서 소개된 자료에 대해 알려 주신 조교 오하라 리에(大原理恵) 선생님[도호쿠대학 학술 자원 연구 공개 센터(사료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결성하여 창작활동을 이어갔다. 1936년 김기림은 일본 도호쿠제국대학(東北帝國大學) 영문학과(英文學科)에 입학하였고 1939년 졸업 후 다시 서울로 돌아가 조선일보사에 복직했다. 1940년 1월 그는 학예부 부장이 되었으며 『조선일보』가 폐간되는 8월까지 근무했다. 해방 후 김기림은 조선문학가동맹에 참여하는 한 편 서울대학교와 연세대학교에서 강의를 담당하였으며, 1948년부터는 조선문학가협회에 참여하였다. 1950년 6월에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 서울에 있던 김기림은 인민군에 연행 납치되었다고 전해진다.

그가 창작 활동을 한 것은 조선일보사 기자로 근무하게 된 1930년부터 한국전쟁이 일어난 1950년까지였다. 그의 창작 기간은 길지는 않았지만 김기림은 식민지기에는 시집을 2권(『기상도』, 창문사, 1936; 『태양의 풍속』, 학예사, 1939), 해방 후에는 시집 2권(『바다와 나비』, 신문화연구소, 1946; 『새노래』, 아문각, 1948), 시론집 2권(『시론』, 백양당, 1947; 『시의 이해』, 을유문화사, 1950), 수필집 1권(『바다와 육체』, 평범사, 1948), 문학론집 2권(『문학개론』, 문우인서관, 1946; 『문장론신강』, 민중서관, 1950), 역서 1권(『과학개론』, 을유문화사, 1948) 등을 출판했다.²⁾

한국에서는 1988년에 월북작가 작품 해금 이후 『김기림전집』(1-6, 심설당, 1988)이 출판되었으며, 이후 김기림 문학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초기에는 김기림을 서구 모더니즘의 추수자로 간주하는 시각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1930년대 모더니즘론을 통해 현대시학의 정립에 기여한 김기림 문학의 문학사적 의의에 주목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그의 문학과 W. H. 오든, T. S. 엘리엇, T. E. 흄 등 주지주의의 영향 및 관계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³⁾ 그러나 김기림은 일본으

2) 김기림의 생애에 대해서는 김학동(2001), 『김기림 평전』, 새문사 참조.

3) 김기림의 연구 상황에 대해서는 장인수(2012), 「도호쿠제대 법문학부의 분위기와 김기림」, 『사이間SAI』 13,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김진희(2009), 『근대문학의 장과 시인의 선택』, 소명출판, p. 34 참조.

로 두 번이나 유학하였으며, 두 번째 유학에서는 도호쿠제대에서 영문학을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일본 유학 경험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충분히 연구되지 않았다.⁴⁾

일본에서 김기림 문학의 번역과 연구에 관해서 살펴본다면, 2000년대까지 그의 저작은 일본에 거의 소개되지 않았으며 연구도 무척 적다. 2000년대에 들어갈 때까지 일본 독자가 유일하게 접할 수 있었던 그의 저작은 김소운이 편집 및 번역을 담당한 『조선시집』(朝鮮詩集, 東京: 岩波書店, 1954)에 실린 시 6편뿐이었다.

그런데 2000년대 이후 김기림의 여러 저작이 일본어로 번역되어 사람들의 관심을 두루 끌고 있다. 일본인 번역가 아오야기 유우코(青柳優子)의 『조선문학의 지성 김기림』(朝鮮文學の知性 金起林, 東京: 新韓社, 2009)은 1930년대부터 1950년대에 걸쳐 발표된 김기림 문학(시, 수필, 평론 등)을 일본어로 번역하여 해설과 함께 편집한 책이다. 이 책을 통해 일본 독자들은 처음으로 모더니즘 시인 김기림의 면모를 만날 수 있게 되었다. 나아가 2018년에는 도호쿠대학(東北大學) 가타히라(片平) 캠퍼스에 김기림 기념비가 세워졌다. 일본인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운동주도 그가 다녔던 교토(京都) 도시샤대학(同志社大學)에 시비가 건립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앞으로 이 기념비를 통해 많은 일본인들이 김기림을 알게 될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2000년대 김기림의 저작이 일본어로 번역된 것이 계기가 되어 일본에서는 그간 잘 알려지지 않았던 김기림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글은 그동안 일본에서 김기림의 저작이 어떻게 번역되었으며 어떻게 논의되었는지 살펴보겠다. 우선 식민지 시기에서 1980년대에 걸쳐 번역된 김기림의 시를 정리한 후, 2000년대에 번역된 저작을 통

4) 도호쿠 제대 시절 김기림에 관한 연구로 윤대석(2006), 「김기림 시론에서의 ‘과학’」, 『한국근대문학연구』 7(1), 한국근대문학회; 아오야기 유우코(2008), 「센다이 시절의 김기림」, 『플랫폼』, 인천문화재단; 장인수 앞의 글 참조.

해 최근의 김기림에 대한 일본에서의 인식을 살펴보겠다. 나아가 일본에서의 김기림에 대한 소개 현황과 연구가 앞으로 김기림 연구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김기림 문학의 일본어 번역 현황: 식민지기부터 1980년대까지

2.1. 김소운의 『젓빛 구름』(乳色の雲)과 『조선시집』(朝鮮詩集)에 실린 김기림의 시들

일본에서는 작품 양은 많지 않았지만 식민지 시기부터 1980년대에 걸쳐서 김기림 작품이 계속 번역되었다. 이 장에서는 1980년대까지 일본에 번역 및 소개된 김기림 시와 그 시를 통해 형성된 김기림 문학에 관한 인식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먼저 김소운이 1940년부터 1954년에 걸쳐 출판한 『조선시집』(朝鮮詩集) 등에 실린 김기림의 시 번역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김소운(1907-1981)⁵⁾은 1907년에 부산에서 태어나 1920년에 일본에 건너가게 된 이후 조선의 시나 동요를 수집하고 있었다. 1928년에 일본의 동요작가이고 시인인 기타하라 하쿠슈(北原白秋)를 알게 된 것이 계기가 되어 1930년대에 『조선동요선』(朝鮮童謠選, 東京: 岩波書店, 1933), 『조선민요선』(朝鮮民謠選, 東京: 岩波書店, 1933) 등 조선의 민요나 동요를 모은 책을 일본에서 출판했다.

1940년 김소운은 1905년부터 1940년에 발표된 조선인 시인 43명의 98편의 시를 모아서 일본어로 번역하여 『젓빛 구름』(乳色の雲, 東京: 河出

5) 김소운의 경력에 대해서는 林容澤(2000), 『金素雲『朝鮮詩集』の世界 — 祖國喪失者の詩心』, 東京: 中公新書 참조.

書房, 1939)을 출판했다. 이 시집에 실린 서문에서 시마자키 도손(島崎藤村)은 “이 시집을 보기 전까지는 몰랐던 소리”⁶⁾를 “동포 독자에게 권하고 싶다”⁷⁾라고 언급하였으며, 또한 사토 하루오(佐藤春夫)는 소개 글에서 조선에 시인한테서 “가르침을 많은 것을 희망한다”⁸⁾라고 하면서 김소운의 번역 시집을 절찬하였다. 두 문학자의 평가를 통해 『젓빛 구름』이 일본 문단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일본 문단에서 호평을 받은 『젓빛 구름』은 1943년 『조선시집』(朝鮮詩集, 東京: 興風館)으로 재간행된다. 『조선시집』은 “전기”(前期)(20명/88편) “중기”(中期)(24명/98편) “후기”(後期)의 전 3권으로 계획되었는데⁹⁾ “전기”와 “중기” 두 권이 간행되었으며 “후기”는 결국 출판되지 않았다. 『조선시집』은 해방 후 1953년 창원사(創元社, 45명/180편)에서, 1954년 이와나미서점(岩波書店, 41명/121편)에서 다시 간행되었다.¹⁰⁾ 이와나미문고(岩波文庫)판 『조선시집』은 1954년 이후 현재까지 재판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에¹¹⁾ 일본 독자들은 이와나미문고판을 통해 김기림 시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 『젓빛 구름』과 여러 번 출판된 『조선시집』은 출판될 때마다 수록 시인과 작품 수에 변화가 있었다. 식민지기인 1943년 출판된 흥풍관판에 수록된 임화, 김대준, 박세영 등의 월북 작가들의 작품은 1953년 창원사판에서는 빠졌다.¹²⁾ 김기림의 경우 1950년에 월북한 것으로 알려지는데, 그의 시들은 해방 후에 출판된 『조선시집』에도 계속 수록되었

6) 島崎藤村(1940), 「序の言葉」, 金素雲, 『乳色の雲』, 東京: 河出書房, p. 3.

7) 島崎藤村, 위의 글, p. 2.

8) 佐藤春夫(1940), 「朝鮮の詩人等を日本詩壇に迎へんとするの辭」, 金素雲, 『乳色の雲』, 東京: 河出書房, p. 8.

9) 金素雲(1943), 『朝鮮詩集』, 東京: 興風館, pp. 16-19.

10) 林容澤, 앞의 책, pp. 6-7 참조.

11) 이 글에서는 활용하는 『조선시집』(이와나미서점, 1954)은 2010년에 발행된 제 12판이다.

12) 林容澤, 앞의 책, p. 169.

다. 1954년에 출판된 이와나미문고판 『조선시집』에 실려진 김기림의 시를 정리하면 이하와 같다.

김소운 『조선시집』(이와나미서점, 1954)에 수록된 김기림의 시

작품 제목	초출 ¹³⁾
蝶と海	「바다와 나비」, 『여성』, 1939. 4
ガラス窓	「유리창」, 『바다와 나비』, 신문화연구소, 1946
共同墓地	「共同墓地」, 『인문평론』, 1939. 10
池	「못」, 『춘추』, 1940. 2
スケイティング	「스케이팅」, 『신동아』, 1934. 3
追放のジュピター	「쥬피타 追放」, 『바다와 나비』, 신문화연구소, 1946 ¹⁴⁾

김소운은 식민지기 일본 잡지를 통해 조선의 시나 동요를 소개하는 활동을 하였는데, 김기림 시 역시 일본 잡지에서 소개한 바 있다. 「바다와 나비」(蝶と海)는 『모던일본 조선판』(モダン日本朝鮮版, 1939. 11)에, 「유리창」(ガラス窓)은 『신녀苑』(1939. 12)에, 「쥬피타 추방」(追放のジュピター)은 『신조』(新潮, 1940. 3)에 게재되었다.¹⁵⁾ 그리고 『젓빛 구름』에는 김기림의 「바다와 나비」, 「유리창」, 「쥬피타 추방」 등 3편을 수록하였다. 1943년

- 13) 이 글에서 김기림 문학의 서지를 한국어로 표기할 때, 제목은 김기림(1988), 『김기림 전집』 1-6(심설당)의 표기를 따랐다. 이하 동일하며, 일부 예외가 있다.
- 14) 「유리창」과 「쥬피타 추방」도 식민지기에 출판된 『조선시집』에 실렸기 때문에 따로 초출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는 두 작품의 식민지 시기 초출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또한 김기림 저, 박태상 주해(2014), 『일본 김기림 시 전집』, 깊은샘, p. 353에는 「쥬피타 추방」의 초출이 『조광』, 1937. 6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잡지를 확인해 봤지만 못 찾았다.
- 15) 또한 김기림 「호텔」(『신동아』, 1934. 5)은 경성에서 발간된 『관광조선』(1939. 12)에 일본어로 번역된 것이 게재되었는데 번역자 이름은 제시되지 않았다. 이 글에서는 일본에서 번역된 작품에 한정되어 다루었기 때문에 이 작품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않았다. 「호텔」의 일본어 번역은 大村益夫·布袋敏博 編(2001), 『近代朝鮮文學日本語作品集(1939~1945)創作篇6』(東京: 綠蔭書房)에 영인본이 수록되어 있다.

홍풍관판에 「공동묘지」, 「못」, 「스케이팅」 등 3편을 추가한 이후, 김기림 시 6편은 해방 후 창원사판과 이와나미문고판에도 변함없이 수록되었다.

김기림 시가 해방 후에 출판된 『조선시집』에도 계속 실린 것은 식민지기 일본에서 『젓빛 구름』과 『조선시집』이 받았던 평가와 관련이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식민지기 『젓빛 구름』과 『조선시집』이 일본 문단에 주목을 받은 것과 김기림 시가 여러 잡지를 통해 소개된 배경을 확인하고자 한다. 중일전쟁이 아시아태평양전쟁으로 확대되면서 일본에서는 아시아에 대한 관심이 고조하였으며, 그에 따라 일본문단에서는 소위 ‘조선붐’¹⁶⁾이 일어나 조선의 문화 및 문학이 활발하게 소개되었다. 『모던일본』(モダン日本)의 임시증간호인 『모던일본 조선판』(モダン日本朝鮮版; 1939. 11, 1940. 8)을 간행한 모던일본사(モダン日本社)는 1940년에 이광수의 작품집 『가실』(嘉實), 『유정』(有情), 『사랑』(愛)을 연이어 출판하였다. 이외에도 『조선소설대표작집』(朝鮮小説代表作集, 신건(申建) 편역, 東京: 教材社), 『조선문학선집』(朝鮮文學選集 전 3권, 장혁주(張赫宙)·유진오·아키타 우자쿠(秋田雨雀)·무라이야마 토모요시(村山知義) 편, 東京: 赤塚書房) 등 여러 조선문학 작품집이 잇달아 출판되었다.

김소운의 『젓빛 구름』과 『조선시집』이 출판된 배경에는 1940년 전후 일본에서 조선 문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조선붐’이 있었다. 당시 일본에서 이들 시가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은 단순히 시 자체가 가진 탁월함 때문이기보다는 『젓빛 구름』을 소개하면서 사토 하루오(佐藤春夫)가 언급했듯, 일본 독자들이 김소운이 번역한 시를 통해 “순수한 아시아의 시심(詩心)”¹⁷⁾을 읽어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사토는 “바로 멸망

16) 일본문단의 ‘조선붐’에 대해서는, 任展慧(1970), 「植民地政策と文學」, 『法政評論』복간-1, 東京: 法政大學第一文化連盟; 任展慧(1984), 「朝鮮側から見た日本文壇の「朝鮮ブーム」— 1939~1940」, 『海峽』 12, 東京: 朝鮮問題研究會; 윤대석(2007), 「1940년대 한국문학에서의 번역」, 『민족문학사연구』 33, 민족문학사학회 참조.

17) 金素雲(1940), 『乳色の雲』, 東京: 河出書房, p. 5.

해가는 말로 그 민족의 마지막 노래”¹⁸⁾를 부르는 조선의 시들이 일본어(국어)로 번역된 것을 통해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의 시심”이 부활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사토의 평가를 염두에 두면, 김소운 시집이 일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던 것은 조선적인 특징을 드러내면서도 그의 번역을 통해 일본 서정시가 가진 아름다움이 표현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김소운이 번역한 조선의 시들이 아름다운 서정시로 평가된 것은 김소운의 번역 방법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김윤식이 지적한 것처럼 『조선시집』에서 번역자인 김소운은 시를 번역하면서 내용까지 개입하였다. 특히 김윤식은 박용철의 「고향」에서 “마을앞 시내도 냇자리 바뀌었을라”라는 줄에 “마을앞 시내”라는 말을 김소운이 “村井戸(마을 우물)”로 번역한 결과 전혀 다른 의미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지적했다.¹⁹⁾ 또한 『조선시집』에 실린 시와 원작 시를 비교하는 여러 연구들은 김소운 번역에는 줄을 바꾸거나 마지막 단어를 명사로 바꾸는 등의 방식으로 시의 리듬을 조정했다고 지적하고 있다.²⁰⁾

김소운의 김기림 시 번역에서도 번역자의 개입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유리창」의 원작과 일본어 번역을 비교해 보면 이하와 같다.²¹⁾

눈포래부는날은 소리치고 우오 吹雪の日は音立てゝ鳴り、
밤이물러간뒤면 온뺨에 눈물이어리오.

18) 金素雲, 위의 책, p. 6.

19) 金允植(2002), 「韓國近代文學史の一視座から見た金素雲 — 『朝鮮詩集』と關聯して」, 『比較文學研究』 7, 김윤식(2012), 『내가 읽고 만난 일본』, 그린비 수록; 김윤식(2009), 『내가 살아온 한국문학사』, 문학과지성사.

20) 원작 시와 비교하면서 김소운의 번역이 가지게 되는 효과에 대해 고찰한 연구로 吳世宗(2008), 「朝鮮の詩心の行方 — 金素雲譯『朝鮮詩集』の翻譯の問題と可能性」, 『言語社會』 2, 一橋大學大學院言語社會研究科 등이 있다.

21) 김소운이 번역한 김기림의 시에 관해서는 『乳色の雲』과 『朝鮮詩集』에 실린 작품의 번역에는 구두점 변화는 찾을 수 있었는데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와나미 문고판을 인용하겠다.

よるの
 夜の退いたあとは頬一ぱいうら涙。
 타지못하는 情熱 박쥐들의燈臺
 燃えあへぬ情熱、こうもりたちの燈臺、
 밤마다 날아가는 별들이 부러워 쳐다보며 밝히오
 夜毎の星を羨んでは仰いで明かす—。22)

이 인용 부분을 보면 “눈물이 어리오”의 일본어 부분은 “うら涙”(축축해진 눈물)이라는 명사로 맺어진다. 그리고 원작의 “쳐다보며 밝히오”라는 표현의 일본어 역에는 마지막 부분의 “—”라는 기호가 삽입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구절을 명사로 맺는 것이나 문장 마지막에 “—”를 삽입하는 것은 시의 여운이 남기는 효과가 있다.

일본적인 서정시의 아름다움을 추구한 김소운의 자세는 해방 후도 유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제시했듯 해방 후에 출판된 흥풍관판과 이와나미문고판에서는 월북 작가의 작품이 사라지지만, 월북한 김기림과 백석의 시는 계속 실려졌다. 임용택은 해방 후 김소운의 번역시집에서 삭제된 시인들은 식민지 시기 카프에 참가하여 프롤레타리아 시를 발표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백석의 시 「여우난굴족」(狐谷の種族)은 조선의 시골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린 작품이었기 때문에 해방 후의 『조선시집』에도 실린 것이라 추측하였다.²³⁾

식민지시기에 출판된 번역시집에 수록된 시인 경력은 해방 후의 『조선시집』에도 거의 변함없이 실린다. 이는 김소운의 번역시집이 해방 전후에 그 성격을 다수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창원사판은 식민지시기에 출판된 흥풍관판이 간행된 1943년으로부터 10년이 지난 1953년에 출판되었다. 해방 이후 시집에 수록된 시인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되었지만, 1953년 『조선시집』에 실린 시인의 경력은 식민지 시기의 것이 거의 그대

22) 金素雲 편역(1954), 『朝鮮詩集』, 東京: 岩波書店, p. 44.

23) 林容澤, 앞의 책, pp. 171-173.

로 실려졌다. 『젓빛 구름』과 『조선시집』에 실린 김기림의 경력은 이하와 같이 설명되었다.

『젓빛 구름』(1939, 가와데쇼보): 김기림 메이지 42년생. 도호쿠 제대 법문졸업. 현 조선일보 학예부장. 시집으로 『기상도』, 『태양의 풍속』 있다.²⁴⁾

『조선시집』(1943, 흥풍관): 김기림 필명 편석촌(片石村). 메이지 42년생. 도호쿠제대 법문졸업. 전 조선일보학예부장. 시집 「기상도」 및 「태양의 풍속」, 그 외에 평론 등.²⁵⁾

『조선시집』(1953, 창원사): 김기림 1909년생. 도호쿠 제대 법문 졸업. 시집으로 「기상도」, 「태양의 풍속」 그 외에 「시론」의 저작이 있다.²⁶⁾

『조선시집』(1954, 이와나미서점): 김기림 1909년생. 도호쿠제대 법문 졸업. 시집으로 「기상도」, 「태양의 풍속」, 그 외에 「시론」 등.²⁷⁾

물론 몇 가지 차이는 있다. 식민지시기에 간행된 시집에 있던 “조선일보 학예부장” 경력은 해방 후에 출판된 시집에서는 사라진다. 또한 해방 후에 출판된 시집에는 해방 후 김기림이 간행한 「시론」을 제시하지만, 단편적인 정보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듯 해방 후에 출판된 『조선시집』에서도 김기림에 관한 경력에 대해 가필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945년 이후 『조선시집』에 김기림은 일본 유학 경험이 있는 식민지 조선의 시인으로 제시된다. 따라서 1945년 이후 『조선시집』을 읽은 일본 독자들은 김기림을 이 시집에 실린 다른 시인과 마찬가지로, 일본 서정시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조선인 시인으로 인식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24) 金素雲 편역(1939), 『朝鮮詩集』, 東京: 河出書房, p. 282.

25) 金素雲 편역(1943), 『朝鮮詩集 中期』, 東京: 興風館, p. 325.

26) 金素雲 편역(1953), 『朝鮮詩集』, 東京: 創元社, p. 312.

27) 金素雲 편역(1954), 『朝鮮詩集』, 東京: 岩波書店, p. 215.

2.2. 해방 후부터 1980년대까지 번역된 김기림의 시

김소운의 『조선시집』보다 출판부수는 훨씬 적었지만, 1950년대 이후 일본의 여러 잡지와 책에 실린 김기림 문학의 일본어 번역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 1950년대 김기림의 시가 번역되어 실린 책으로는 재일조선인 시인 허남기(許南麒)가 번역 및 편집을 한 『조선시선』(朝鮮詩選, 1955, 東京: 青木書店)을 들 수 있다. 이 시집에 실린 김기림 시는 「쥬피타 추방」(追放されたジュピター) 한 편이다.

1939년에 도일한 허남기(1918-1988)는 해방 후에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총련, 1955년 결성)의 문화 단체인 재일조선인문학예술가동맹(문예동, 1959년 결성)에서 초대 위원장을 맡는 등 북한의 입장에 공명하면서 재일조선인의 단체에서 중심인물로 활동하였다. 1950년대 후반기부터 그는 주로 조선어로 창작했는데 그 전까지는 일본어로 시를 쓰고 있었다. 조선 민족의 저항의 역사가 그려진 허남기의 일본어 서사시 『화승총의 노래』(火繩銃の歌, 1952, 東京: 青木書店)는 일본 문단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²⁸⁾

허남기의 『조선시선』이 출판된 1955년이라는 시기는 재일조선인들 문학활동의 과도기였다고 할 수 있다. 허남기는 “민족의 독립과, 민족의 자유와, 민족의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되돌아보면서 민족문학으로의 계통이 있는 것”²⁹⁾을 중심으로 『조선시선』을 편집하여 일본인 독자에게 소개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런데 그가 “민족문학”으로 시를 선정한 기준은 “중시 일관, 민족의 양심으로 행동해왔는지”³⁰⁾였다. 후일 총련의 문학 단체인 문

28) 해방 후 재일조선인들의 문학 활동에 대해서는 송혜원(2019), 『‘재일조선인 문학사’를 위하여: 소리 없는 목소리의 폴리포니』, 소명출판 참조. 1948년생 한국사 연구자 미야지마 히로시(宮嶋博史)는 대학 시절 허남기의 서사시 『화승총의 노래』에 감명을 받아 한국사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고 회고하였다. 미야지마 히로시(2013), 『미야지마 히로시, 나의 한국사 공부』, 너머박스, p. 17.

29) 許南麒(1955), 『朝鮮詩選』, 東京: 青木書店, p. 266.

30) 許南麒, 위의 책, p. 267.

예동에서 중심인물로 활동한 허남기가 ‘민족의 양심’이라는 기준을 중심에 둔 결과, 이 시집 제 1장에 실린 시인들은 김소운의 『조선시집』의 수록된 시인들과 겹쳐지기도 하지만, 해방 후의 시를 모은 제 2, 3장에 실린 대부분의 시는 월북작가의 작품으로 채워졌다.³¹⁾

이 시집에 수록된 김기림의 시 「쥬피타 추방」은 김소운의 『조선시집』에도 수록된 시이기도 한다. 이 시가 선택된 이유는 “중화민국의 여린피를 드리”켰던 쥬피타(신)가 추방된다는 제목에서도 볼 수 있듯, 이 시는 김기림의 「아프리카 광상곡」(『조광』, 1936. 7)과 마찬가지로 서양 강대국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강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³²⁾ 허남기의 『조선시선』에서는 김기림을 “1909년생. 니혼대학 예술과, 도호쿠대학 법문과 졸업. 조선일보기자 등을 맡았다. 시집 「기상도」 「태양의 풍속」이 있다. 8·15 이후 남조선에서 동반자적 입장에 서면서 시를 창작했는데 현재 북조선에 있다”³³⁾라고 소개하였다. 허남기는 김기림이 북한에 있다고 했는데, 이는 이 시집이 월북작가의 시를 다수 수록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허남기의 시집 『조선시선』 출판 이후, 일본에서는 시대 상황의 변화에 따라 김기림의 번역 작품이 확장되며 평가도 다양해진다. 일본인들이 1970년 결성한 ‘조선문학의 회’(朝鮮文學の會)³⁴⁾가 출판한 동인잡지 『조선문학 — 소개와 연구』(朝鮮文學 — 紹介と研究, 1971-1974)에는 김기림 시가 2편 게재되었다. 1960년대 오무라 마스오(大村益夫, 현 와세다대학 명예교수) 등의 몇몇 일본인들은 조선문학을 공부하는 작은 모임을 이어갔

31) 林容澤, 앞의 책, p. 183.

32) 「쥬피타 추방」과 「아프리카 광상곡」시 2편의 공통점에 대한 지적은 김기림 저, 박태상 주해(2014), 『원본 김기림 시 전집』, 깊은샘, p. 353을 참조했다.

33) 許南麒, 앞의 책, p. 57.

34) 일본의 ‘조선문학의 회’에 대해서는 장문석(2016), 「1960~1970년대 일본의 한국문학 연구와 ‘조선문학의 회’(朝鮮文學の會)」, 『한국학연구』 40,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참조.

으며, 1970년 ‘조선문학의 회’를 창립하였다. 앞서 재일조선인 작가들의 창작활동은 정치적 실천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었는데, ‘조선문학의 회’는 정치적인 활동과 거리를 두고 남북한 양쪽의 문학을 균형있게 번역하여 일본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하였다. 조선문학의 회 편(朝鮮文學の會 編), 『현대조선문학선』(現代朝鮮文學選 1-2, 1973-1974, 東京: 創土社)은 그 성과였다.

김기림의 시는 『조선문학 — 소개와 연구』 1972년 7월호에 실렸다. 거기에는 중국문학연구자인 니지마 아쓰요시(新島淳良)가 번역한 「海上」(「해상」, 『조선일보』, 1931. 6. 2)과 「太陽の風俗」(「태양의 풍속」, 『태양의 풍속』, 학예사, 1939. 9)이 실렸다. 1945년 이후 일본에서 『조선시집』에 실리지 않았던 김기림의 시가 처음으로 소개된 사례이다. 이 잡지에서는 김기림의 경력을 “1909년생. 도호쿠제국대학 법문과 졸업. 『기상도』 『태양의 풍속』의 시집이 있다. 해방 후 임화 이태준 등과 함께 서울에서 조선문학가동맹의 창립에 참가. 후 북한으로 도피했다”³⁵⁾라고 소개하였다. 이러한 경력 소개는 ‘조선문학의 회’가 문학사적인 관심에서 김기림의 시를 주목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나아가 1983년에는 ‘조선문학의 회’에도 참여했던 오무라 마스오가 번역한 「われらの八月に歸ろう」(「우리들의 8월로 돌아가자」, 『자유신문』, 1945. 12. 1)가 『계간 삼천리』(季刊 三千里, 1983. 여름)에 게재되었다. 이 작품은 김기림의 해방 후 작품으로는 일본에서 처음으로 소개된 작품이었다. 오무라는 이 시를 “해방의 날의 원점의 회귀를 노래하는 것”³⁶⁾이라고 설명하였는데, 그는 한반도의 통일을 소원했던 김기림의 태도를 높이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 시가 실린 『계간 삼천리』라는 잡지가 7·4남북공동성명에 자극을 받은 김달수 등의 재일조선인들이 창간한 잡지였다는 점 역시 기억할 수 있다.³⁷⁾ 또한 김기림 경력도 “(1908~?) 호는 편석촌.

35) 『朝鮮文學 — 紹介と研究』, 1972. 7, p. 43.

36) 大村益夫(1983), 「對譯朝鮮近代詩選」, 『季刊三千里』 여름, p. 226.

니혼대학 예술과, 도호쿠대학 영문과에서 배우며 귀국 후 1931년부터 시와 시론을 잇달아 발표하여 모더니즘 운동의 깃발을 올렸다. 『조선일보』 『조광』 등 신문사, 잡지사에서 근무, 해방 후는 38도선을 넘어 ‘월북’하기 전까지 서울대교수도 맡았다. 공화국에서는 문학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 시집으로 『태양의 풍속』(1934) 등. 시론집으로 『시론』(1947)이 있다”³⁸⁾라고 자세히 제시되어 있다. 김기림이 모더니즘시인으로 소개된 것 역시 처음이다.

이후 오무라는 나중에 이 시를 포함한 여러 시인들의 시를 모아서 『대역시로 배우는 조선의 마음』(對譯詩で學ぶ朝鮮の心, 1998, 東京: 靑丘文化叢書)을 출판하였다. 이 책 역시 김기림 시 「우리들의 八月로 돌아가자」 1편을 소개하고 있으며, 식민지기부터 해방 후에 이르는 그의 자세한 경력이 함께 소개되었다.³⁹⁾ 오무라의 번역과 소개를 통해 일본 독자들은 김기림이 참가한 문학단체 구인회와 그의 주지주의 시론 등을 접하면서 조선 문학사에서 김기림의 위치를 파악하게 된다.

37) 『계간 삼천리』의 성격에 대해서는 廣瀨陽一(2019), 『日本のなかの朝鮮 金達壽傳』, 東京: クレイン, pp. 154-155.

38) 大村益夫, 앞의 글, pp. 232-233.

39) 오무라가 기록한 김기림의 경력은 이하와 같다. “본명은 김인손, 호는 편석촌. 보성고등보통학교 중퇴 후 일본으로 건너가 릿쿄중학, 니혼대학 문학부 예술과에서 공부함. 1930년 『조선일보』 기자, 1933년, 이효석, 박태원, 조용만, 정지용 등과 함께 순수문학을 표방한 ‘구인회’를 결성, 시작과 시론에 활약했다. / 1936년, 도호쿠제국대학 영문과에 입학, 해방직후, 서울에서 입화 등과 함께 조선문학가동맹을 조직, 여러 대학에서 강사도 역임했는데 한국전쟁 중 월북하여 그 이후 소식 불명. 그는 최재서와도 함께 주지주의의 이론을 조선 문학에 정착시켜 모더니즘시 운동의 선구적 역할을 맡았다. 주지주의는 1920년대 전반의 시단의 주류였던 낭만주의에 대치하여 또한 1920년대 후반의 주류를 이룬 사회주의 경향과도 대립한 것이었다. / 시집으로 『기상도』(1936), 『태양의 풍속』(1939), 『바다와 나비』(1946), 『새노래』(1948). 그 이외에 평론집, 수필집도 많이 있고 소설이나 희곡 분야에서도 많은 저작을 남기고 있다. / 「우리들의 八月로 돌아가자」는 1946년 발행의 양주동 편(1946), 『민족문학독본』 하권(서울출판)을 저본으로 하고 있다.”(大村益夫 編譯(1998), 『對譯詩で學ぶ朝鮮の心』, 東京: 靑丘文化叢書, p. 131).

김소운의 『젓빛 구름』과 『조선시집』 이후 김기림 시는 간헐적이지만 일본에 계속 소개되었다. 특히 ‘조선문학의 회’의 번역과 소개를 통해 일본의 독자들은 모더니즘 시인으로서 김기림에 관해 알게 된다. 다만, 많은 일본 독자들은 이와나미문고판 『조선시집』을 통해 김기림 시에 접했기 때문에 김기림을 식민지의 시인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다. 오무라 등이 주목한 모더니즘 시인으로서 김기림의 면모는 2000년대 김기림의 문학이 소개될 때 일본독자들이 접하게 된다.

3. 일본에서의 김기림 문학 재평가: 아오야기 유우코의 김기림 문학 번역

1988년 김기림을 비롯한 (남)월북작가의 작품이 해금된 이후 한국에서는 1930~40년대 한국문학사를 공백 없이 연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2000년 전후 한국과 일본에서는 식민지와 제국의 상호관계를 검토하는 ‘제국사’ 연구가 전개되었고 ‘대일협력’, ‘식민지 공공성’, ‘식민지 근대성 (colonial modernity)’의 연구로 이어지면서 조선 근대사를 재인식하게 되었다.⁴⁰⁾ 이와 같은 맥락에 공명하며 일본에서는 지금까지 체계적으로 소개되지 않았던 식민지 조선 문학의 번역 작업이 진행되었다. 예를 들어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일본 출판사 헤이본사(平凡社)는 “조선근대문학선집” 시리즈를 계획하여 이광수의 「무정」 등을 번역하여 전 8권을 출판하였다.⁴¹⁾

40) 일본에서의 조선 근대사에 관한 연구 상황은 三ツ井崇(2008), 『朝鮮』, 日本植民地研究會 編, 『日本植民地研究の現状と課題』, 東京: アテネ社, p. 98.

41) 헤이본사(平凡社)의 “조선근대문학선집” 시리즈는 와세다 대학(早稲田大學) 명예교수 오무라 마스오(大村益夫)와 동 대학 교수 호테이 토시히로(布袋敏博)가 기획하였다. 출판된 작품집들은 이하와 같다. 이광수 저, 하타노 세쓰코 역(2005), 『무정』; 강경애 저, 오무라 마스오·호테이 토시히로 역(2006), 『인간문제』; 박태원 외 저,

아오야기 유우코(靑柳優子)가 김기림과 그의 문학에 관심을 갖고, 김기림이 수학했던 도호쿠대학이 있는 일본 센다이(仙台)에서 ‘코리아 문고’(코리아文庫) 동료들과 함께 김기림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것도 이런 2000년대의 연구의 흐름 속에서 진행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오야기는 2009년에 김기림의 문학(시, 수필, 평론)을 체계적으로 번역하여 단행본 『조선문학의 지성 김기림』(朝鮮文學の知性 金起林, 2009, 東京: 新幹社)을 출판했다. 아오야기는 김기림을 “1930년대의 조선에 모더니즘 문학 이론을 소개하여 또한 자신도 시를 중심으로 창작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1950년 한국 전쟁이 발발한 후 연행되어 북한으로 납치된 이후 현재까지 소식 불명인 문학자”⁴²⁾라고 설명한 것처럼, 오무라 등과 마찬가지로 김기림을 모더니즘 시인으로 주목했다. 또한 아오야기는 『바다와 나비』(1946, 신문화연구소)의 「머릿말」에서 김기림이 1930년대의 ‘반’근대적 분위기와 작풍을 일소하기 위해 “가장 힘있는武器로서는 다름아닌 知性的太陽이 필요하였”⁴³⁾다고 언급한 것에 주목하면서, 그의 문학이 ‘지성’을 중심으로 하고 있음을 환기하였다. 아오야기의 책에 실린 김기림 저작은 이하와 같다.

1. 시 — 데모크라시에 부치는 노래

작품명	초출
詩論	「詩論」, 『조선일보』, 1931. 1. 16.
屋上庭園	「屋上庭園」, 『조선일보』, 1931. 5. 31.

세리카와 데쓰요 외 역(2006), 『단편소설집 박태원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외 13편』; 채만식 저, 구마키 쓰토무·호테이 토시히로 역(2009), 『태평천하』; 김동인 저, 하타노 세쓰코 역(2011), 『김동인 작품집』; 염상섭 저, 시라카와 유타카 역(2012), 『삼대』; 이태준 저, 구마키 쓰토무 역(2016), 『사상의 월야』; 이기영 저 오무라 마스오 역(2017), 『고향』.

42) 靑柳優子(2009), 『朝鮮文學の知性 金起林』, 東京: 新幹社, p. 8.

43) 김기림(1946), 「머릿말」, 『바다와 나비』, 신문화연구소, p. 1; 김기림 저, 박태상 주해(2014), 앞의 책, p. 257.

작품명	초출
散歩路	「散歩路」, 『문학』, 1934. 1.
太陽の風俗	「太陽의 風俗」, 『태양의 풍속』, 학예사, 1939. 9.
エトランゼ(異邦人)	「에트란제(異邦人)」, 『중앙』, 1934. 10.
待合室	「待合室」, 『중앙』, 1934. 10.
贈りもの	「贈物」, 『중앙』, 1935. 2.
世界の朝	「세계의아침」, 『중앙』, 1935. 5.
病んだ風景	「病든 風景」, 『중앙』, 1935. 7.
關北紀行	「關北紀行斷章」(『조선일보』, 1936. 3. 14-20)에서 발췌.
アフリカ狂想曲	「아프리카狂想曲」, 『조광』, 1936. 7.
東方紀行	「東方紀行」, 『문장』, 1939. 6-7.
療養院	「療養院」, 『조광』, 1939. 9.
共同墓地	「共同墓地」, 『인문평론』, 1939. 10.
池	「못」, 『춘추』, 1941. 2.
年輪	「年輪」, 『춘추』, 1942. 5.
幼い共和國よ	「어린 共和國이여」, 『신문에』, 1946. 7.
デモクラシーに寄せる歌	「테모크라시에 부치는 노래」, 『새노래』, 아문각(雅文閣), 1948. 4.
壁を崩そう	「벽을 헐자」, 『새노래』, 아문각(雅文閣), 1948. 4.
句や節でもない二言、三言	「句節도 아닌 두서너 마디」, 『개벽』, 1947. 8.
希望	「希望」, 『신천지』, 1947. 12.
わけもなく月が明るい	「뜻없이 달이 밝아」, 『새노래』, 아문각(雅文閣), 1948. 4.
新年に杯をとり	「새해 앞에 잔을 들고」, 『주간서울』, 1949. 1. 10.
詩集『海と蝶』序言	「『바다와 나비』머릿말」, 『바다와 나비』, 신문화연구소, 1946.

II. 수필 — 꽃에 부쳐서

작품명	초출
新聞記者としての最初の印象	「新聞記者로서 최초의 印象」, 『철필』, 1930. 7.
都市の風景I — 觸手をもったデパート	「都市風景1・2(上) — 觸手 가진 「테파트먼트」」, 『조선일보』, 1931. 2. 21.

작품명	초출
星を失った男	「별들을 잃어버린 사나이」, 『신동아』, 1932. 2.
忘れられた傳説の町	「잊어버린 傳説의 거리」, 『신동아』, 1932. 9.
生活と靑い鳥	「生活과 파랑새」, 『신동아』, 1933. 1.
忘れてしまいたい私の港	「잊어버리고 싶은 나의 港口」, 『신동아』, 1933. 5.
道	「길」, 『조광』, 1936. 3.
殊方雪信	「殊方雪信」, 『조선일보』, 1936. 12. 23-24.
故 李箱の記憶	「故 李箱의 추억」, 『조광』, 1937. 6.
旅行	「旅行」, 『조선일보』, 1937. 7. 25-28.
舊びた望洋亭	「인제는 늙은 望洋亭」, 『조선일보』, 1937. 7. 31.
山	「山」, 『조선일보』, 1939. 2. 16.
東洋の美德	「東洋의 美德」, 『문장』, 1939. 9.
文壇不參記	「文壇不參記」, 『문장』, 1940. 2.
母と資本	「어머니와 資本」, 『문화일보』, 1947. 4. 11.
一つ、または二つの世界	「하나 또는 두 世界」, 『신문평론』, 1947. 4.
花に寄せて	「꽃에 부쳐서」, 『국도신문』, 1949. 4. 10-12.

Ⅲ. 평론 — 조선문학에의 반성

작품명	초출
古典主義と浪漫主義	「古典主義와 로맨티시즘」, 『조선일보』, 1935. 4. 26-28.
モダニズムの歴史的位位置	「모더니즘의 歴史的 位置」, 『인문평론』, 1939. 10.
朝鮮文學への反省—現代朝鮮文學の一課題	「朝鮮文學에의 反省—現代朝鮮文學의 한 課題」, 『인문평론』, 1940. 10.
「東洋」に關する斷章	「「東洋」에 관한 斷章」, 『문장』, 1941. 4.
李箱の文學の一面	「李箱의 文學의 한 모습」, 『태양신문』, 1949. 4. 26-27.
民族文化の性格	「民族文化의 性格」, 『서울신문』, 1949. 11. 3.

이 표가 제시하는 것처럼 아오야기의 책에는 1930년부터 1949년까지 김기림의 저작이 수록되어 있다. 1980년대 오무라 마스오의 소개를 통해

모더니즘 시인으로서 김기림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하였는데, 아오야기의 작업을 통해 일본 독자들은 비로소 김기림의 다양한 작품을 처음 접하며 그의 식민지기부터 해방 후까지 활동 전모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 책에는 「김기림의 생애」와 「김기림 문학을 읽다 — 작품 해설의 대신하여」라는 해설도 같이 실려 있는데 이 해설들은 그의 전기적인 사실과 함께 김기림 문학의 의미를 검토하고 있다.

아오야기의 책은 그간 충분히 밝혀지지 않은 도호쿠 제대 시절의 김기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 책은 당시 교원 명단과 강의 내용, 그가 접했던 서양 문학 책, 그의 동창이었던 조선인 유학생의 증언 등이 정리되어 있다. 최근 한국에서도 김기림의 도호쿠 제대 영문과 유학이 그의 문학과 사상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연구가 시작되고 있는데, 아오야기의 책은 한국의 김기림 문학 연구에서도 기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한다.⁴⁴⁾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오야기의 책은 식민지 시기 김기림이 ‘지성’을 추구했다는 점에 유의하면서,⁴⁵⁾ 그의 저작을 번역 및 소개하였다. 김기림 시나 수필에는 서양문학의 영향을 받은 표현들이 눈에 띄기 때문에, 일본의 독자들은 그의 문학이 서양이나 일본의 모더니즘 문학을 반복하며 조선의 식민지 현실과 떨어진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책은 김기림의 평론을 동시에 소개하면서 그가 서양과 일본의 ‘근대’를 받아들이면서 조선의 새로운 문학을 성립하고자 했던 것을 알 수 있다. 「朝鮮文學에의 反省 — 現代朝鮮文學의 한 課題」(1940, 『인문평론』)나 「「東洋」에 관한 斷章」(1941, 『문장』) 등의 글이 그러한 예시이다.

44) 장인수는 김기림의 도호쿠제대 유학 시절을 검토하는 과정에 아오야기의 책을 참조하고 있다. 장인수, 앞의 글 참조.

45) 식민지 시기 김기림 비평과 ‘지성’에 관해서는 김동식(2008), 「1930년대 비평과 주체의 수사학: 임화·최재서·김기림의 비평을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24, 한국현대문학회 참조.

동시에 이 책은 김기림이 제국 일본에 대한 비판적인 거리를 갖추고 있었다는 점을 일본 독자들에게 제시하고 있다. 아오야기는 김기림이 일본 유학 경험이 있었지만, 일본에 대해 쓴 시가 거의 없다는 것에 대해 “마치 근대 일본을 무시하는 것 같다”⁴⁶⁾라고 이해하면서, 김기림의 여러 작품에서 일본에 대한 그의 비판적인 시선을 읽어냈다. 예를 들어 아오야기는 식민지 경성의 근대화된 풍경을 비판적으로 그려진 「옥상정원」(『조선일보』, 1931. 5. 31)의 제목이, 일본 근대 서사시를 대표하는 기타하라 하쿠슈(北原白秋)가 주간하는 동인지 제목을 비롯하여 일본 근대문학에 자주 등장하는 말이라는 것에 주목한다. 나아가 아오야기는 김기림의 시 「옥상정원」의 “백화점의 옥상정원”은 일본 문학계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나아가 그 시에 등장하는 “그들의 日氣에대한 株式에대한 西班牙의 革命에대한 온갖 지꺼림에서 귀를 틀어막고 잠속으로 피난하는것이 좋다고 생각한다”⁴⁷⁾라는 표현에 주목하면서 “전쟁에 들어가는 시대 상황속에서 “귀를 틀어먹고 잠속으로 피난”할 수 밖에 없는 예술지상주의의 일본 시단(詩壇)을 제시한 것”⁴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아오야기는 일본 여행 경험을 기록한 시 「동방기행」(1939, 『문장』)에 등장하는 일본인 소녀로부터 식민지 조선에 대한 일본의 무관심을 읽어낸다. 일본인 소녀는 시적 주체에게 “우숨을 두고온데가 어디냐고” 물어보는데 시적 주체가 “祖國이아닌 祖國. 먼希望의무덤에”라고 대답하자, 소녀는 “아모레도 ‘키네마’ 보다는 재미없는 얘기라 하면서 도라선다.” 아오야기는 이 시에 등장하는 일본 소녀가 “김기림 작품에 등장한 거의 유일한 일본인의 서민”⁴⁹⁾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조선에 대한 일본인의

46) 靑柳優子, 앞의 책, p. 241.

47) 김기림(1939), 「屋上庭園」, 김기림, 『태양의 풍속』, 학예사, p. 41; 김기림 저, 박태상 주해, 앞의 책, p. 101.

48) 靑柳優子, 앞의 책, p. 243.

49) 靑柳優子, 앞의 책, p. 249.

무관심을 이렇게까지 단적으로 형상화한 시는 드문 것이다”⁵⁰⁾라고 평가하면서, 김기림이 이 시를 통해 식민지 조선에 대한 일본인의 무관심과 무지를 표현한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아오야기는 일본인에 대한 거리감과 대조적으로 그가 조선의 관북을 여행하면서 쓴 시 「관북기행」(『조선일보』, 1936. 3)에 나타난 인물 묘사에는 친밀감을 읽어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둘째, 아오야기는 해방 후 김기림이 조선문학동맹에 참여하고 새로운 민족 문학을 모색했던 시기의 저작도 함께 편집하여서, 김기림의 ‘지성’이 해방 후에도 계속되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책은 시, 수필, 평론을 3장으로 구성되는데, 각 장에서 식민지기와 해방 후의 저작은 구별되지는 않았다. 이러한 책 구성은 일본 독자가 식민지 시기와 해방 후의 김기림 저작을 연속성의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이 책의 띠지에는 “조선 해방 후, 시인·평론가로 시대를 이끌고, 지금의 문제와도 공통되는 작품을 남긴 김기림. 한국전쟁의 와중에 사라진 그의 ‘평화에의 소원’이 작품과 같이 일본에서 처음으로 되살아난다”라고 쓰여 있다. 이것은 아오야기가 해방 후 김기림의 문학적 실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 책 각 장의 부제는 김기림이 남긴 작품 제목에서 옮겨왔는데, 제1장의 부제 「데모크라시에 부치는 노래」와 제2장의 부제 「꽃에 부쳐서」는 모두 해방 후의 작품 제목이다. 이 역시 아오야기의 관심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해방 후 김기림의 문학적 실천은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단되는 상황 속에 수행되었기 때문에, 아오야기는 김기림의 해방 후 활동을 ‘평화에의 소원’⁵¹⁾이라고 평가했다.

아오야기의 책은 김기림을 식민지시기를 통해 ‘지성’을 획득하며, 해방 후 그 ‘지성’으로 새로운 민족 문학을 추구한 문학자로 제시하면서, 일본 독자에게 김기림에 관한 새로운 이해를 제공한다. 김기림 문학의 여러 면모가 드러나면서 앞으로 일본에서 김기림 문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확

50) 青柳優子, 앞의 책, p. 249.

51) 青柳優子, 앞의 책, p. 265.

산과 새로운 연구 네트워크의 형성 가능성 역시 기대할 수 있다.

서두에도 제시한 것처럼 2018년 도호쿠대학에 김기림 기념비가 건립되었다. 이 기념비 건립에는 전 도호쿠대학 교수이자 현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교수 남기정이 도호쿠제대에 유학했던 김기림이 “평화주의자”라는 사실에 관심을 가진 것이 계기가 되었다. 남기정 교수는 한국과 일본 연구자들과 함께 2017년에 ‘김기림 기념사업회’를 만들고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20주년인 2018년의 김기림 기념사업으로 기념비를 건립하게 되었다.⁵²⁾ 기념비에는 김기림 대표작 「바다와 나비」가 한국어 시와 아오야기의 일본어 번역이 함께 새겨졌다. 아오야기의 김기림 번역은 김기림의 새로운 면모를 일본인들에게 알리는 데 공헌했다.

기념비의 건립을 계기로 앞으로 일본에서도 김기림에 관한 행사가 여럿 열리며, 그의 일본 유학 시절에 관한 연구 역시 보다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미 일본에는 운동주 삶과 문학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중요한 배경 중 하나로는 운동주가 다녔던 대학이 중심으로 되어 운동주를 추도하는 행사들이 매년 열었다는 사실에 있다. 그가 공부했던 도쿄의 릿쿄대학(立教大學)과 시비가 설립되어 있는 교토의 도시샤대학(同志社大學)에서는 매년 운동주 추도회를 열었으며, 이것을 계기로 많은 일본 시민들은 운동주를 알게 되었다.⁵³⁾ 또한 ‘시인 운동주를 기념하는 릿쿄의 회’(詩人尹東柱を記念する立教の會)의 야나기하라 야스코(楊原泰子)는 20여 년 동안 도쿄 시절 운동주의 행적을 조사한 결과 운동주가 도쿄에서 살았던 집의 주소를 확인한 바 있다.⁵⁴⁾

52) 「北으로 간 김기림 기념비 日에 건립… 평화 추구한 시인 재평가 되길」, 『서울신문』, 2018. 9. 7.

53) ‘시인 운동주를 기념하는 릿쿄의 회’가 2007년 설립된 이후 릿쿄대학에서는 매년 그의 기일인 2월 16일을 즈음하여 추도식을 진행하고 있다. 도시샤 대학에서는 ‘운동주를 추도하는 회’가 1992년부터 결성되었으며 1995년 2월 16일 시비가 설립되었다. 역시 매년 그의 기일에 가까운 토요일에 추도식을 열고 있다.

54) 「운동주 선배가 나와 같은 의자에 앉아 공부했더니…」, 『한겨레』, 2015. 2. 3.

김기림 기념비의 건립 이후 센다이를 중심으로 김기림에 관한 많은 행사가 열렸다. 2018년 11월 30일 김기림 기념비 제막식이 열렸으며 다음날에는 ‘김기림과 평화 심포지엄’(주 센다이 대한민국 총영사관, 도호쿠대 공동주최)이 개최되었다. 또한 같은 해 9월부터 12월까지 김기림의 학생 기록부를 소장한 도호쿠대학 사료관(東北大學史料館)에서 계획 전시 “바다를 건너간 시인 학자들”(海を渡った詩人學者たち)이 열렸다.⁵⁵⁾ 이 전시는 도호쿠제대와 인연이 있으며 “‘국제어’인 영어를 습득하면서도 서로 다른 모어로 창작을 시도”⁵⁶⁾한 3명의 영문학자 겸 시인에 주목한 계획이었다. 김기림 이외의 나머지 2명은 도호쿠 제대 교원 랄프 호지슨(Ralph Hodgson)과 센다이 출신으로 구제(舊制) 제2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영국 유학을 거쳐 경성제대 영문과 교수가 된 사토 기요시(佐藤清)였다. 전시회에서는 김기림의 학생기록부(복제품)나 그의 시집 『태양의 풍속』 등이 전시되어 학생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김기림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이 전시회 기간 중 2018년 9월 28일 도호쿠대학 사노 마사토(佐野正人) 준교수는 “도호쿠대학 사료관 제 7회 아카이브스 세미나”에서 「센다이에서 아시아에 향한 시인, 아시아에서 센다이에 온 시인 — 사토 기요시와 김기림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사료관의 전시와 연동한 내용으로 강연을 하였고, 강연을 정리한 글이 사료관 간행물에 실렸다.⁵⁷⁾ 나아가 기념비 설립 1주년인 2019년에는 행사 「김기림으로부터 배우고, 이

55) 도호쿠대학 사료관의 김기림 전시 등에 관해 귀중한 정보를 알려 주시고 『東北大學史料館だより』를 제공해 주신 도호쿠대학 학술 자원 연구 공개 센터(사료관) 준교수 가토 사토시(加藤諭) 선생님, 전시회를 계획하시고 전시회에서 소개된 자료에 관해 알려 주신 조교 오히라 리에(大原理恵) 선생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56) 東北大學史料館ミニ企画展「海を渡った詩人學者たち」 포스터 참조(<https://www.tohoku.ac.jp/japanese/2018/11/event20181128-02.html>).

57) 佐野正人(2010), 「金起林と仙台, そして「海と蝶」, 『東北大學史料館だより』 12, 東北大學史料館 참조. 사노 교수가 김기림에 대해 논한 다른 글로 佐野正人(2019), 「仙台からアジアに向かった詩人、アジアから仙台に來た詩人 — 佐藤清と金起林を中心に」, 『東北大學史料館だより』 30.

제 샌다이에서 한일 교류를! — 김기림 기념비 건립 1주년을 축하하며 (2019. 11. 30)가 열렸으며, 기념비를 설립한 남기정 서울대 교수의 강연과 도호쿠대 마쓰나가 모토카즈(松谷基和) 준교수의 제자들의 연구발표, 아오야기 유우코의 남편이자 함께 활동하는 아오야기 준이치(青柳純一)의 강연 등이 있었다. 여러 행사나 전시를 통해 김기림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에 대한 연구 역시 더욱 심화할 것이다.⁵⁸⁾

다만 운동주의 시비가 그를 추도하는 “기억의 장”으로 기능하면서 역설적으로 운동주를 특정 이미지로 고정했음을 떠올려볼 때,⁵⁹⁾ 일본에서 건립된 김기림의 기념비 역시 김기림에 대한 일면적인 이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어 시 「바다와 나비」가 새겨진 기념비 뒷면에서는 김기림의 경력을 간략히 소개된다. 그 소개에서는 「바다와 나비」의 표현을 빌려 김기림을 “근대라는 거친 파고를 넘어 큰 바다로 향했던 한 마리 나비”로 소개한다. 그리고 그의 시에서 “어려운 정세 속에서도 희망을 모색하려는 의지를 읽을 수 있다”라고 평가한다.⁶⁰⁾ 따라서 김기림 기념비를 통해 김기림을 접한 시민들은 김기림을 식민지시기에 저항한 “나비”라는 인상을 기억할 것이다.

따라서 김기림을 많은 이들에게 소개하는 한 편, 그에 대한 이해가 특정 방향으로 고정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다. 다음 장에서는 아오야기의 책이 간행된 2000년대를 전후하여 번역된 김기림 다른 저작을 살펴보고, 최근 일본에 소개된 김기림 저작들은 김기림의 어떤 면에 주목하고 있는지 고찰해 보겠다.

58) 아오야기는 ‘코리아문고’ 회원들과 김기림 저작 및 관련 자료 조사를 함께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아오야기 유우코, 앞의 글, p. 80.

59) 김신정(2015), 「운동주」, 『동아시아 기억의 장』, 삼인.

60) 김기림 기념비 디자인이 지니는 의미와 시비에 새겨진 글에 대해서는 “김민수교수의 디자인역사문화”(http://blog.daum.net/gettok/384) 참조.

4. 2000년대 이후 김기림 문학의 일본어 번역 현황: 새로운 김기림 이해를 위하여

2000년대 이후에도 이와나미문고판의 『조선시집』이 중판을 거듭했기 때문에, 많은 일본인들은 여전히 『조선시집』을 통해 김기림의 시를 접하였다. 그런데 아오야기의 책이 출판된 비슷한 시기에, 재일조선인 시인 김시중(金時鐘, 1929~)은 김소운의 번역 행위를 재해석하면서 『조선시집』의 시 역시 다시 읽어내고자 하였다. 김시중은 2002년부터 2007년에 걸쳐 『조선시집』의 원작을 재번역하였으며, 그 결과를 『재역 조선시집』(再譯朝鮮詩集, 2007, 岩波書店)으로 출판하였다.⁶¹⁾ 1929년생인 김시중은 해방 후 일본에 거주하면서 일본어로 시와 수필을 다수 발표하였다. 그는 식민지시기에 일본어 교육을 받았는데, 특히 1940년에 출판된 김소운의 『젓빛 구름』을 통해 “조선인이 조선에서 생성하여 조선의 ‘시심’이라 불리우는 것을 정미(精美)하고 유려(流麗)한 일본어를 통해 깨닫았을 때의 기쁨”⁶²⁾을 경험했다고 회고한다. 동시에 그는 『젓빛 구름』을 통해 느낀 감동을 “김소운의 ‘명역’(名譯)이 가져다 준 일본어의 은혜 그 자체였다”⁶³⁾라고 진단하면서, 『조선시집』에 실린 시의 ‘시심’을 잘 살리기 위해 원작 표현에 충실한 번역을 기획한다. 또한 김시중이 새로 번역한 시집에는 조선어 원작을 함께 수록하기 때문에, 독자들은 조선어 원작과 일본어 번역을 비

61) 김시중의 『재역 조선시집』에 관한 연구로는 四方田犬彦(2005), 「譯と逆に。譯に。金時鐘による金素雲『朝鮮詩集』再譯をめぐって」, 『言語文化』 22, 明治學院大學言語文化研究所; 吳世宗(2008), 「朝鮮の詩心の行方 — 金素雲譯『朝鮮詩集』の翻譯の問題と可能性」, 『言語社會』 2, 一橋大學大學院言語社會研究科; 김동희(2017), 「식민지 체험과 번역의 정치학 — 『朝鮮詩集』에 수록된 정지용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 35, 한국근대문학회 등이 있다.

62) 金時鐘(2007), 「『朝鮮詩集』を再譯するに当たって」, 『再譯 朝鮮詩集』, 東京: 岩波書店, vi.

63) 金時鐘, 위의 글, vii.

교하면서 읽을 수 있다.

김시중 『재역 조선시집』에는 김소운의 『조선시집』과 마찬가지로 김기림 시 6편(「海と蝶」「ガラス窓と心」「共同墓地」「池」「スケーティング」「逐われたジュピター」)이 새롭게 번역되어 실렸다. 같은 시가 다시 실리지만 김시중의 번역시집에는 김소운의 번역시집에는 실리지 않았던 김기림의 자세한 경력을 참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재역 조선시집』에 함께 실린 다른 조선인 시인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독자들은 모더니즘 시인이라는 이해 위에서 김기림의 시를 접하게 된 것이다.⁶⁴⁾

김소운은 조선어 원작 시의 리듬을 조정하는 등 시의 내용 개입을 시도하기도 하였지만, 김시중 번역은 이로부터 거리를 두고 있다. 김소운의 번역이 가진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선행연구가 지적한 바 있는데, 그 중에 오세종(吳世宗)은 구체적으로 김소운과 김시중의 번역을 비교하고 있다. 오세종은 김소운이 번역한 여러 시에서 “나”라는 주어가 사라진 것에 주목하면서, 원작과 비교할 때 김소운의 번역시는 그려진 대상에 시선이 가게 된다고 논하고 있다.⁶⁵⁾ 또한 오세종은 김시중의 김기림 시 번역을 분석하고 있다. 오세종은 김기림 「유리창」의 “내마음은 유리가봐. 겨울한을

64) 김시중의 『재역 조선시집』에서 소개한 김기림의 경력은 이하와 같다. “호 편석촌. 1908-?. 함경북도 학생 출생. 30년, 니혼대학 문학예술과 졸업. 귀국한 후는 조선일보 사회부 기자를 맡고 재직중에 시를 발표. 31년, 고향에 들어가 과수원을 지으면서 창작. 33년, ‘구인회’(김기림, 이태준, 정지용 등이 중심으로 결성된 모더니즘 문학단체)의 동인으로 이과 함께 당시의 모더니즘 시·시론의 대표작가로 활약. 36년, 시집 『기상도』. 39년, 동 『태양의 풍속』. 그 후 다시 도일함. 39년, 도호쿠제대 영문과 졸업 후에 다시 조선일보의 기자가 된다. 해방 후인 46년, 시집 『바다와 나비』. 8·15(해방)후는 서울대학교 등에서 문학 강의를 한다. 조선문학가동맹에서 활동하면서 문학자의 정치 참여를 강하게 주장했다. 47년, 평론집 『시론』. 48년, 수필집 『바다와 육체』. 49년, 평론집 『시의 이해』. 한국전쟁(6·25동란) 때의 월북, 사망했다고 전해졌는데 물년은 불명. 한국의 고등학교 교과서에 시 「바다와 나비」(『태양의 풍속』 수록)가 게재되어 있다.”, 金時鐘 譯, 『再譯 朝鮮詩集』, 東京: 岩波書店, 2007, p. 34.

65) 吳世宗, 앞의 글.

처럼/이처럼 작은한숨에도 흐려버리니……”라는 시구에 대한 김소운과 김시종의 번역을 비교하고 있다. 우선 김소운은 위 시구를 “わたしのころはガラスかしら、冬空みたいに / こんな小さい吐息にも ちき曇つてしまふ。”라고 번역하였다. 오세중은 시적 주체가 의문을 던지고 있는데 김소운의 시는 “ちき曇つてしまふ”(곧 흐려버린다)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그 의문의 대답을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번역되었다고 설명한다. 김시종은 같은 구절을 “ぼくの心はガラスなんだろうか、冬空さながら / こんな小さい吐息にもすぐに曇ってしまうなんて……”라고 번역하였는데, 오세중은 김시종이 “유린가봐”를 의문형 문장 “ガラスなんだろうか”(유리일까)로 번역하였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말을 거는 느낌이 나타나며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⁶⁶⁾

또한 「공동묘지」의 경우 번역자 김시종은 조선에서 공동묘지가 갖는 의미를 주석으로 설명하였다. 그는 “풍수설이 널리 알려져 있는 조선에서는 ‘공동묘지’라고 하면, 기독교도나 가난해서 묘지를 마련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무의탁들의 묘지였다”⁶⁷⁾라고 설명하였다. 번역자의 보충설명을 염두에 두면서 이 시를 읽으면, 공동묘지를 편안한 공간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식민지 조선에서 죽어간 여러 가난한 사람들의 존재를 읽어 낼 수 있도록 한다.

김소운의 『조선시집』에 수록된 다른 시인들과 마찬가지로, 그 이전까지 김기림의 시는 일본어(국어)의 서정시적인 아름다움을 지닌 시로 받아들여졌다. 그런데 김시종의 “재역”을 통해 『조선시집』에 실린 김기림의 시는 모더니즘 시인의 작품으로 다시 해석되었으며, 일본 독자들에게 김기림에 관한 새로운 이해를 제시한다.

지금까지 번역된 김기림 저작들은 모더니즘 문학자로서 김기림의 형상

66) 吳世宗(2009), 「リズムと抒情の詩學: 金時鐘『長篇詩集 新潟』の詩的言語を中心に」, 一橋大學大学院言語社會研究科博士論文.

67) 金時鐘, 앞의 책, p. 37.

에서 크게 벗어난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최근 일본에서는 김기림이 조선일보 기자로 발표한 수필이 번역 및 소개되면서, 저널리스트로서 그의 활동이 소개되기 시작하고 있다. 아오야기의 책에도 경성의 도시 풍경을 그린 「都市風景1・2(上)」(『조선일보』, 1931. 2. 21), 「屋上庭園」(『조선일보』, 1931. 5. 31) 등이 수록되었지만, 저널리스트로서 김기림 문학의 특징을 보여주는 수필은 이외에도 다수 존재한다.

김기림이 조선일보 기자로 발표한 글 중의 하나인 「간도기행」(『조선일보』, 1930. 6. 13-26)은 최근 동인잡지 『보통 수준의 친구 — 한국수첩』(中くらいの友だち — 韓くに手帖)의 제5호(2019. 6)와 제6호(2019. 12)에 일부가 번역되었고 제7호(2020. 6. 예정)로 번역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보통 수준의 친구』는 번역가 사이토 마리코(齊藤真理子) 등이 2017년 4월 창간한 동인잡지이다. 사이토가 번역한 「간도기행」은 도쿄의 니혼대학을 졸업한 후 귀국한 김기림이 조선일보사에 취직한 후 1930년 5월에 일어난 조선인의 항일운동인 간도 5·30사건을 취재한 글이다. 사이토는 김기림이 검열을 고려하여 현지 사람의 대화와 현지 신문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간도 저항운동의 실체를 조선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했다고 판단하면서 저널리스트로서 김기림을 고평한다. 「간도기행」의 번역은 김기림의 기행문 중 일본어로 처음 번역된 것으로 일본 독자들에게 저널리스트로서 김기림의 면모를 새롭게 제시한 것이다.

또한 전문 번역은 아니지만 식민지 조선의 모던보이와 모던걸에 관한 연구가 일본에 번역되면서, 그 가운데 저널리스트로서 김기림의 산문이 함께 소개되었다. 2000년대 한국에서는 식민지 조선의 식민지근대성에 주목한 연구 성과가 다수 제출되었는데 연구 성과 중 일부가 일본어로 번역되었다.⁶⁸⁾ 최근 일본에 번역된 서지영의 『경성의 모던걸: 소비, 노동, 젠

68) 김진송(2002), 『서울에 탄스홀을 허하라 — 현대성의 형성』, 현실문화연구, 金振松著, 川村湊 監역, 安岡明子・川村亞子 訳(2005), 『ソウルにダンスホールを — 1930年代朝鮮の文化』, 東京: 法政大學出版局; 신명직(2003), 『모던보이, 경성을 거닐다

터로 본 식민지 근대』(여이연(2013))는 도시로 이동한 식민지 조선 여성의 근대 경험을 다룬 연구서인데,⁶⁹⁾ 이 책에서도 김기림의 수필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의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김기림의 수필 「짙그린 도시풍경」(『조선일보』, 1930. 11. 11), 「都市風景1·2(上)」(『조선일보』, 1931. 2. 21), 「都市風景1·2(下)」(『조선일보』, 1931. 2. 24), 「봄의 전령」(『조선일보』, 1933. 2. 22), 「직업여성의 성문제」(『신여성』, 1933. 4), 「그 봄의 전리품」(『조선일보』, 1935. 3. 18), 「인형의 옷」(『여성』, 1940. 7) 등을 접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을 요하는 것은 이 수필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조선 모던걸들에 대한 김기림의 인식이다. 서지영은 같은 시기의 여성 작가 이선희의 작품과 김기림의 수필을 함께 비교하면서, 식민지 조선의 도시 여성의 소비활동에 대한 욕망을 주목한 점이 공통이라고 지적하였다. 김기림 글에서는 여성의 소비 활동에 대해서 “도회는 매춘부이다”⁷⁰⁾라고 언급하고 식민지 조선의 도시문화를 “「프로스티투트」 문화”⁷¹⁾라고 기술하였다. 서지영은 이러한 김기림 글의 언급에서 모던걸의 소비를 어리석은 소비로 간주하는 근대 남성 지식인의 시선을 읽어냈다.⁷²⁾

모던걸에 관한 김기림의 비판적 인식은 역시 그의 ‘지성’에 근거한 것이었다. 이 점에서 김기림의 ‘지성’에 관한 논의 역시 평면적 이해에서 벗어나 입체적인 이해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식민지기와 해방 후의 김기림 시에 나타난 여성에 대한 인식이 변모한 것처럼,⁷³⁾ 그의 ‘지성’ 역시 식민

— 만문만화로 보는 근대의 얼굴』, 현실문화연구,申明直 저,岸井紀子·古田富建 역(2005),『幻想と絶望 — 漫文漫畫で讀み解く日本統治時代の京城』,東京:東洋經濟新報社.

69) 徐智瑛 저,姜信子·高橋梓 역(2016),『京城のモダンガール — 消費・労働・女性から見た植民地近代』,東京:みすず書房.

70) 김기림, 「都市風景1·2(하) — 흥분된 「러쉬아워」」, 『조선일보』, 1931. 2. 24.

71) 김기림, 「女性時評 인형의 옷」, 『여성』, 1940. 7, p. 46.

72) 서지영(2013), 『경성의 모던걸: 소비, 노동, 젠더로 본 식민지 근대』, 여이연, p. 117.

73) 서안나(2015), 「김기림 시의 여성인식 변모양상 연구」, 『비평문학』 56, 한국비평문

지기에서 해방 후에 걸쳐 변모해간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5. 맺음말

지금까지 김기림 문학의 일본어 번역 현황을 검토해보았다. 그 결과 식민지기부터 2000년대에 이르는 시기 김기림에 대한 일본의 인식 역시 변모해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김기림의 문학은 식민지기에 출판된 김소운의 『젯빛 구름』과 『조선시집』에 실렸다. 김소운의 번역은 일본 서정시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이유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그 결과 일본 독자 역시 이 시집들에 실린 김기림 시를 서정시로 읽었을 것이다. 특히 김소운의 『조선시집』은 해방 후 창원사(1953년)에서 다시 출판되었고 이어서 이와나미서점(1954년)에서 거듭 간행했기 때문에, 김기림의 시를 서정시로 이해하는 시각은 일본에서 오랫동안 유지되었다.

다른 한 편, 출판 부수와 유통 범위는 한정되어 있었지만 재일조선인 지식인과 조선 문학에 진지한 관심을 갖추었던 일본인들은 『조선시집』에 실려지지 않은 김기림의 작품을 번역하면서, 김기림의 새로운 면모를 일본에 소개하였다. 재일조선인 시인 허남기는 제국 일본에 저항의 자세를 유지한 시인들의 시를 모아서 『조선시선』(1955)을 간행한다. 김기림이 월북작가라는 사실 또한 허남기의 시집을 통해 일본에 소개되며, 그의 시 역시 일본에 대한 저항이라는 맥락에서 이해되었다. 한편 본격적으로 조선문학을 연구한 일본인들이 조직한 ‘조선문학의 회’ 회원들은 문학사적인 관심으로 김기림 시를 번역하였다. 연구자 오무라 마스오가 대표적인 번역가이며, 그는 일본에서 김기림을 모더니즘 시인으로 소개하면서 그의 작품을 번역하였다.

2000년대 이후 김기림에 대한 일본의 이해는 이전 보다 다양해졌다. 아오야기 유우코는 단행본 『조선문학의 지성 김기림』(2009)을 통해 김기림 문학(시, 수필, 평론)을 체계적으로 번역하였다. 아오야기는 식민지 시기와 해방 후의 김기림을 연속적으로 파악하여 그 문학의 전체상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는 김기림의 ‘지성’이 서양 모더니즘 문학에 영향을 받으면서도 완전히 서양과 일본 모더니즘 문학을 추수하는 것이 아니었으며 일본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갖추었다고 평가하였다. 나아가 김기림의 ‘지성’이 해방 후 새로운 민족 문학을 추구했던 그의 활동으로 이어지는데, 해방 후 김기림의 문학적 실천은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단되는 상황 속에 수행되었기 때문에, 아오야기는 김기림의 해방 후 활동을 ‘평화への 소원’이라고 평가했다. 김기림에 대한 아오야기의 재평가는 이후 김기림을 “근대라는 거친 파고를 넘어 큰 바다로 향했던 한 마리 나비”로 기억하는 센다이의 기념비 설립 및 각종 행사로 계승되면서 사회적으로 확산되었다.

또한 재일조선인 시인 김시중은 김소운의 『조선시집』에 수록된 식민지 조선의 시를 충실히 다시 번역하여 『재역 조선시집』(2007)을 출판했다. 김기림의 시 역시 다시 번역되었으며, 『재역 조선시집』을 통해 김기림의 시는 일본 서정시의 특징을 지닌 시가 아니라 모더니즘 시인의 작품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사이토 마리코의 기행문 「간도기행」 번역이나 한국의 식민지 모던걸에 관한 연구서의 번역을 통해서 저널리스트로서 김기림의 면모 역시 일본에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최근 도호쿠대학 내에 김기림 기념비가 건립된 것에서 볼 수 있듯, 김기림 문학의 여러 면모가 드러나면서 앞으로 일본에서 김기림 문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확산과 새로운 연구 네트워크의 형성 가능성 역시 기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김기림의 일본 유학 및 일본 경험이 김기림 문학 연구의 확장과 심화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간단히 가늠해보고자 한다.

첫째, 김기림의 일본 유학과 신문기자로서 그의 활동 사이의 관계이다. 그동안 문학자로서 김기림의 면모는 다양하게 연구되었지만, 신문기자로

서 그의 활동은 상대적으로 충분히 연구되지 않았다.⁷⁴⁾ 특히 김기림은 일본 유학을 마치고 나서 조선일보사에 취직 및 재취직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일본 유학 경험이 그의 기자로서 활동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김기림의 ‘지성’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본 유학 경험과 신문기자 활동을 함께 고찰하는 필요가 있다.

둘째, 김기림의 사상과 이론을 일본사상과의 관계 속에서 검토하는 것이다. 그동안 ‘지성’을 중심으로 한 김기림의 사상을 동시대 조선 비평가의 사상과 함께 논의하거나 중일전쟁기 ‘동아협동체론’의 언설공간에서 검토하였다.⁷⁵⁾ 최근의 성과를 바탕으로 1930~40년대 일본의 사상과의 관계⁷⁶⁾ 속에서 김기림의 사상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김기림의 저작이 일본어로 충분히 소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에서 김기림 문학 연구 역시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였다. 최근 김기림의 저작이 체계적이고 다양하게 소개되고 있으며, 나아가 수필 등 다양한 저작이 번역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기림 문학의 일본어 번역을 계기로 이후 일본에서 김기림 문학 연구, 특히 그의 유학 경험에 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이를 통해 서구 모더니즘과도 구별되고 제국 일본의 사상과도 구별되는, 식민지 조선의 ‘지성’ 김기림의 문학과 사상이 보다 입체적으로 연구되기를 기대한다.

74) 조영복(2007), 『문인기자 김기림과 1930년대 ‘활자-도서관’의 꿈』, 살림출판사; 조선일보사 사료연구실 편(2004), 『조선일보 사람들: 일제시대 편』, 랜덤하우스코리아.

75) 윤대석(2006), 「김기림 시론에서의 ‘과학’」, 『한국근대문학연구』 7-1, 한국근대문학학회; 이진형(2014), 「일제 말기 ‘역사’ 담론의 아포리아와 그 초극의 문제: 임화와 김기림의 역사 이해를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 29, 한국근대문학학회; 김진희(2015), 「동아협동체(東亞協同體)의 논리와 조선문학의 과제: 김기림과 서인식의 논의를 중심으로」, 『아시아문화연구』 37, 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76) 石井知章・小林英夫・米谷匡史 편(2010), 『1930年代のアジア社會論 — 「東亞協同體」論を中心とする言説空間の諸相』, 東京: 社會評論社; 홍종욱 편(2017), 『식민지 지식인의 근대 초극론』,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참고문헌

【자 료】

- 金素雲(1954), 『朝鮮詩集』, 東京: 岩波書店.
_____(1953), 『朝鮮詩集』, 東京: 創元社.
_____(1943), 『朝鮮詩集 中期』, 東京: 興風館.
_____(1940), 『乳色の雲』, 東京: 河出書房.
許南麒(1955), 『朝鮮詩選』, 東京: 青木書店.
金起林 著, 新島淳良 譯(1972), 「海上」(太陽の風俗), 『朝鮮文學 — 紹介と研究』, 7.
金起林 著, 大村益夫 譯(1983), 「對譯朝鮮近代詩選 われらの八月に歸ろう」, 『季刊三千里』, 여름.
大村益夫 編譯(1998), 『對譯 詩で學ぶ朝鮮の心』, 東京: 青丘文化叢書.
金時鐘(2007), 『再譯 朝鮮詩集』, 東京: 岩波書店.
靑柳優子(2009), 『朝鮮文學の知性 金起林』, 東京: 新幹社.
金起林 著, 齊藤眞理子 譯(2019), 「間島紀行」, 『中くらいの友だち-韓くに手帖』 5-6.

- 김기림 著, 박태상 주해(2014), 『원본 김기림 시 전집』, 깊은샘.
김기림(1988), 『김기림전집』 1-6, 심설당.
_____(1946), 「머릿말」, 『바다와 나비』, 신문화연구소.
_____(1940), 「女性時評 인형의 옷」, 『여성』.
_____(1939), 「屋上庭園」, 김기림, 『태양의 풍속』, 학예사.
_____(1931), 「都市風景1・2(하) — 흥분된 「러쉬아워」」, 『조선일보』, 1931. 2. 24.

【논 저】

- 김동식(2008), 「1930년대 비평과 주체의 수사학 — 입화·최재서·김기림의 비평을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24, 한국현대문학회.
김동희(2017), 「식민지 체험과 번역의 정치학: 『朝鮮詩集』에 수록된 정지용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 35, 한국근대문학회.
김신정(2015), 「윤동주」, 『동아시아 기억의 장』, 삼인.

- 김윤식(2012), 『내가 읽고 만난 일본』, 그린비.
- _____(2009), 『내가 살아온 한국문학사』, 문학과지성사.
- 김진희(2015), 「동아협동체(東亞協同體)의 논리와 조선문학의 과제 : 김기림과 서인식의 논의를 중심으로」, 『아시아문화연구』37, 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 _____(2009), 『근대문학의 장과 시인의 선택』, 소명출판.
- 김학동(2001), 『김기림 평전』, 새운사.
- 미야지마 히로시(2013), 『미야지마 히로시, 나의 한국사 공부』, 너머박스.
- 서안나(2015), 「김기림 시의 여성인식 변모양상 연구」, 『비평문학』 56, 한국비평문학회.
- 서지영(2013), 『경성의 모던결: 소비, 노동, 젠더로 본 식민지 근대』, 여이연.
- 송혜원(2019), 『‘재일조선인 문학사’를 위하여: 소리 없는 목소리의 폴리포니』, 소명출판.
- 아오야기 유우코(2008), 「센다이 시절의 김기림」, 『플랫폼』, 인천문화재단.
- 윤대석(2007), 「1940년대 한국문학에서의 번역」, 『민족문학사연구』 33, 민족문학사학회.
- _____(2006), 「김기림 시론에서의 ‘과학’」, 『한국근대문학연구』 7(1), 한국근대문학회.
- 이진형(2014), 「일제 말기 ‘역사’ 담론의 아포리아와 그 초극의 문제: 임화와 김기림의 역사 이해를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 29, 한국근대문학회.
- 장문석(2016), 「1960~1970년대 일본의 한국문학 연구와 ‘조선문학의 회(朝鮮文學の會)’」, 『한국학연구』 40,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 장인수(2012), 「도호쿠제대 법문학부의 분위기와 김기림」, 『사이間SAI』 13,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 조선일보사 사료연구실 편(2004), 『조선일보 사람들: 일제시대 편』, 랜덤하우스 코리아.
- 조영복(2007), 『문인기자 김기림과 1930년대 ‘활자-도서관’의 꿈』, 살림출판사.
- 홍종욱 편(2017), 『식민지 지식인의 근대 초극론』,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北으로 간 김기림 기념비 일에 건립… 평화 추구한 시인 재평가 되길」, 『서울신문』, 2018. 9. 7.
- 「윤동주 선배가 나와 같은 의자에 앉아 공부했다니…」, 『한겨레』, 2015. 2.3.

【국외 논문 및 단행본】

- 石井知章・小林英夫・米谷匡史 편(2010), 『1930年代のアジア社會論 — 「東亞協同體」論を中心とする言説空間の諸相』, 東京: 社會評論社.
- 林容澤(2000), 『金素雲『朝鮮詩集』の世界 — 祖國喪失者の詩心』, 東京: 中公新書.
- 任展慧(1984), 「朝鮮側から見た日本文壇の「朝鮮ブーム」 — 1939~1940」, 『海峽』 12, 東京: 朝鮮問題研究會.
- _____(1970), 「植民地政策と文學」, 『法政評論』 복간-1, 東京: 法政大學第一文化連盟.
- 吳世宗(2009), 「リズムと抒情の詩學: 金時鐘『長篇詩集 新潟』の詩的言語を中心に」, 一橋大學大学院言語社會研究科博士論文.
- _____(2008), 「朝鮮の詩心の行方 — 金素雲譯『朝鮮詩集』の翻譯の問題と可能性」, 『言語社會』 2, 東京: 一橋大學大学院言語社會研究科.
- 金允植(2002), 「韓國近代文學史の一視座から見た金素雲 — 『朝鮮詩集』と關聯して」, 『比較文學研究』 7, 東京: 東大比較文学會.
- 佐野正人(2019), 「仙台からアジアに向かった詩人、アジアから仙台に來た詩人 — 佐藤清と金起林を中心に」, 『東北大學史料館だより』 30, 仙台: 東北大學學術資源研究公開センター史料館.
- _____(2010), 「金起林と仙台, そして「海と蝶」」, 『東北大學史料館だより』 12, 仙台: 東北大學學術資源研究公開センター史料館.
- 廣瀨陽一(2019), 『日本のなかの朝鮮 金達壽傳』, 東京: クレイン.
- 三ツ井崇, 「朝鮮」, 日本植民地研究會 編, 『日本植民地研究の現状と課題』, 東京: アテネ社.
- 四方田犬彦(2005), 「譯と逆に。譯に。金時鐘による金素雲『朝鮮詩集』再譯をめぐって」, 『言語文化』 22, 東京: 明治學院大學言語文化研究所.
- 徐智瑛 지, 姜信子・高橋梓 역(2016), 『京城のモダンガール — 消費・勞働・女性から見た植民地近代』, 東京: みすず書房.

원고 접수일: 2020년 5월 14일

심사 완료일: 2020년 5월 25일

게재 확정일: 2020년 5월 25일

要 約

知性から平和へ:

金起林文学の日本語翻訳とその展望

高橋梓*

本稿では、朝鮮の植民地期から2010年代にかけて行われた金起林文学(詩、随筆、評論)の日本での翻訳状況について提示し、金起林文学の翻訳がどのような研究のネットワークを形成するかについて考察した。まず、金起林の詩は削除金素雲の『乳色の雲』(1939年)と『朝鮮詩集』(1943年)に収録された。金素雲の翻訳は、日本の抒情詩の美しさが表現されたものとして高く評価されたため、日本の読者もこれらの詩集に収録された金起林の詩を抒情詩として読むことになったと考えられる。さらに、金素雲の『朝鮮詩集』は解放後に創元社(1953年)と岩波書店(1954年)から再び刊行された。岩波文庫の『朝鮮詩集』は今日でも版を重ねて出版されているため、日本では金起林の詩は抒情詩的な特徴を持つ作品として位置づけられてきたといえる。

一方で、1950年代以降には、出版部数と書籍の流通の規模は限られていたが、在日朝鮮人知識人と朝鮮文学に関心を持ちながら研究を行っていた日本人が『朝鮮詩集』に収録されていない金起林の作品を翻訳し、これまで知られていなかった金起林の新たな面を日本の読者に

* 高麗大学校 民族文化研究院 研究教授

示すことになった。在日朝鮮人詩人許南麒は、帝国日本に抵抗し続けた朝鮮の詩人の作品を集めて『朝鮮詩選』(1955年)を出版したが、そこには金起林の作品も収録された。許南麒の『朝鮮詩選』では、金起林が越北作家であるという背景が紹介されるとともに、金起林の詩の中でも日本への抵抗的な姿勢が目立つものが翻訳された。また、朝鮮文学の翻訳と研究を行っていた「朝鮮文学の会」の会員らは、文学史的な関心から金起林の詩を翻訳した。同会の会員で、朝鮮文学研究者の大村益夫は、金起林の詩を翻訳するとともに、金起林がモダニズム詩人であるということを日本の読者に紹介した。

2000年代以降には、日本においてより多様な金起林文学の翻訳が行われるようになった。青柳優子は、金起林の著作(詩、隨筆、評論)を体系的に翻訳し、『朝鮮文学の知性 金起林』(2009)を出版した。青柳は金起林が植民地期から解放後にかけて新たな文学を確立しようとしていたことに注目した。具体的には、金起林の「知性」が西洋のモダニズム文学を追従するのではなく、むしろ「知性」をとおして日本への批判的な視座を獲得することになり、さらにその「知性」は解放後には新たな民族文学を追求する活動へとつながったとした。そのような金起林の実践が朝鮮半島の分断状況の中で行われたため、青柳は金起林の解放後の活動を「平和への願い」として高く評価した。金起林をめぐる青柳の再評価は、「近代という荒波を越え大海原に向かった一羽の蝶」として金起林を追悼する仙台・東北大学の金起林記念碑や、記念碑の建立をきっかけに開催されたさまざまなシンポジウムや企画展などにおいて継承されていった。

また、2000年代には在日朝鮮人詩人金時鐘が金素雲の『朝鮮詩集』に収録された詩を原作に忠実に翻訳し、『再訳 朝鮮詩集』(2007年)を出版した。『再訳 朝鮮詩集』をとおして、金起林の詩は日本の抒情詩的な特徴を持つものではなく、モダニズム詩人の作品として提示されることに

なった。また、翻訳家齋藤真理子による金起林の紀行文「間島紀行」の翻訳や、韓国における植民地のモダンガールをめぐる研究書が日本語に翻訳されたことで、金起林をめぐるジャーナリストという面が新たに注目されはじめた。

このように、日本では金起林について多様な角度から翻訳と研究が進められつつある。また、2018年に東北大学に金起林記念碑が建立されたことをきっかけにさまざまなシンポジウムや展示が行われたように、今後日本において金起林文学への関心がより高まり、新たな研究のネットワークが形成されることが考えられる。さらに、金起林が日本に留学していた時期についての研究が進めば、これまで西洋と日本のモダニズム文学と共に論じられることが多かった金起林の「知性」について、また別の角度から接近することが可能になるだろう。